



‘타오르는 강’ 소설어 사전 펴낸 소설가 문순태

“토박이 말은 그 지역 사람들의 혼이 담긴 언어”

“토박이말이야말로 그 지역 사람들의 혼이 담긴 언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방언’이나 ‘사투리’라는 표현보다 ‘토박이말’ 혹은 ‘지역어’라고 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표준어가 서울지방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라면, 지역어는 지역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지역마다 그 지역 사람들의 성품이나 정서가 담긴 지역어가 있는 것이다.”

소설가 문순태(생오지문학촌 대표)는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전 9권·소명출판) ‘소설어 사전’(소명출판)을 펴낸 뒤, 오래 붙들고 있었던 숙제를 마친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 출간을 앞두고는 40년 창작 기간 동안 전라도 정서를 작품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험난한 길’을 달려왔던 회한의 기쁨도 배어났다.

소설어 사전은 지난 2012년 37년 만에 완간한 ‘타오르는 강’ 전 9권의 부록으로 출간된 것이다. 전라도 토박이 말 4000여 개가 수록돼 있어 독자들이 우리말 사전을 찾지 않고도 쉽게 읽을 수 있다. 또한 토박이 말 외에도 고어와 속담, 외래어까지도 수록돼 다양한 언어 비교가 가능하다.

“그동안 ‘타오르는 강’을 읽은 독자들로부터 소설에 나오는 토박이말의 뜻을 잘 몰라 소설 읽기에 불편하다는 전화를 자주 받았다. 1987년 ‘타오르는 강’(전 7권·창비)이 처음 발간되었을 때도 소설어 사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9권 완간후 2년만에 부록 출간

전라도 사투리 4000개 뜻풀이

다양한 고어·속담·외래어 수록

들어왔다. 그러다 2년 전 ‘타오르는 강’ 완간을 하면서 사전도 함께 펴내기로 결심했다.”

‘타오르는 강’은 구한말 영산포 일대에 정착한 민중들의 삶을 그린 대하소설이다. 영산포는 무능한 탐관오리들이 세곡을 한양의 경창(京倉)으로 실어 나르는 물류 중심지였다. 작가는 민초들의 시난고난한 삶과 근현대사의 격동의 역사를 묶어 특유의 ‘짙액질’ 같은 문체로 작품을 형상화했다.

문 작가에게 ‘전라도’는 전체가 고향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모든 작품에 전라도 정서가 짙게 투영돼 있다. 언어가 정신의 산물이라면 작가의 토박이말에 대한 애착은 남도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읽힌다.

그는 ‘타오르는 강’에 유독 토박이말을 많이 구사한 것은 법정스님(1932~2010)과의 일화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88년 봄에 송광사 불일암에서 법정스님을 만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토박이말이 너무 많이

‘타오르는 강’이 별로 팔리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을 했다. 재판을 찍을 때는 모두 표준어로 바꾸고 싶다고 했더니 스님이 완강하게 만류했다. 이유 인즉슨 지역 사투리는 그 지역 사람들의 혼이 담긴 언어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것이었다.”

문 작가는 법정스님을 만난 이후로 오히려 더 토박이말을 많이 구사했다고 한다. ‘징소리’, ‘철쭉제’, ‘피아골’ 등 수많은 작품에 질박하면서도 맛깔스러운 전라도 말을 삽입했다.

그는 작품을 쓸 때면 녹음기를 들고 5일장이나 농사현장을 찾곤 했다. 토속어를 채록한 뒤에는 일일이 노트에 옮겨 작품을 쓸 때마다 수시로 참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토박이말 중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많다”며 “앞으로는 명사를 찾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 작가의 토박이말 사랑에 대해 ‘우리말 소반 다듬이’ 저자 권오운 씨는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서 전라도 토박이말을 가장 폭넓고 정확하게 구사하는 작가”라는 평을 한 바 있다. 그만큼 그가 소설 속 인물들을 생생하고 개성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방증이다.

“소설가는 언어의 채굴자다. 우리말을 되살리기 위해 토박이말을 많이 구사하고 활용도를 넓혀야 한다. 언어는 우리의 정신이자 혼이기 때문이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포도시:겨우
잼매다:뭉다
플러:풀어
뽕작:가까이

전남 구석구석 ‘시네마 버스’가 갑니다

전남문화재단 12월까지 22곳 순회

영화관이 없는 전남 시·군 지역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문화사업이 시행된다.

전남문화재단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도내 22곳에서 도민의 문화감수성을 충족시켜줄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영화관’, ‘시네마버스’, ‘광장 영화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영작은 최근 극장에서 상영됐던 ‘군도’, ‘해적’, ‘용의자’, ‘우아한 거짓말’ 등 인기작으로 준비했으며, ‘명랑’ 등 최신작도 극장에서 종영되는 대로 추가 상영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오는 19일 담양문화회관을 시작으로 영광 예술의전당(20일), 광양문화회관(21일), 진도 향토문화회관(23일), 고흥 과역면(10월 10일), 장성 문화회관(10월 14일), 해남 문화회관(10월 18일), 함평엑스포주제영상관(11월 1일), 강진 아트홀(11월 26일) 등 총 9곳에서 진행된다.

‘시네마 버스’는 도서 벽지 등 문화기반이 취약

한 지역 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관내 학교 강당으로 초청,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19일 진도 조도중을 출발해 여수 거문도 삼호광장(25일), 신안 비금초교(10월 11일), 완도 고금도 국민체육센터(10월 15일), 완도 생영초 체육관(10월 16일), 신안 증도중(10월 22일), 신안 신의초(11월 6일), 완도 신지도 문화센터(11월 11일), 광양 옥곡중(11월 14일), 고흥 봉래초(11월 19일), 강진 읍천문화센터(12월 11일)까지 11곳을 찾아가는다.

‘광장 영화관’은 9월 17일과 12월 두차례 여수 이순신광장과 무안 김대중 광장에서 추억의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GS칼텍스와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추진중인 지역 맞춤형 메세나 활동으로 10월 9일 여수 예음마루 광장에서 ‘찾아가는 영화관’을 열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공연도 선보인다. 12월 26~29일까지는 여수 예음마루 대공연장에서 ‘도서지역 오케스트라 음악캠프’를 진행한다. 문의 061-280-5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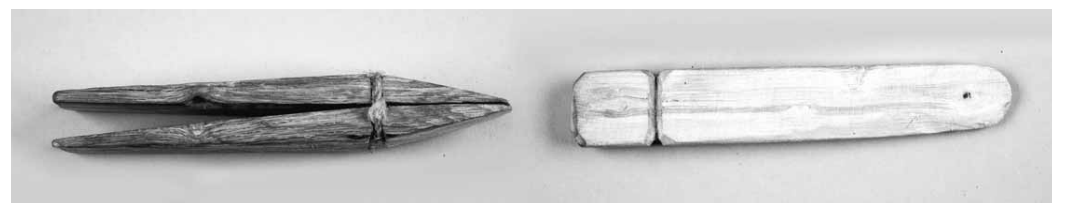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군도’



‘해적’



집게와 뼈기 (복원품)

2000년전 우리나라 ‘最古의 집게’

국립광주박물관, 12월21일 ‘집게의 탄생...’

1997년 광주 신창동 유적 발굴조사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작은 나무 조각이 발견됐다. 당시에는 정확한 쓰임새를 알 수 없었다. 이후 지난 2012년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이 특별전 ‘신창동-2000년 전의 타임캡슐’을 준비하던 중 집게로 밝혀졌다.

이 나무 집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집게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집게의 발달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12월21일 전시관 중앙홀에서 특별전 ‘집게의 탄생-신창동 유적 출토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집게’를 개최한다.

통형집게를 만들 때 고정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집게는 길이 15cm, 너비 2.8cm의 단단한 참나무 조각 2개로 만들어졌다. 둥근 나무를 반으로 쪼개 안쪽 면을 편평하게 가공했다. 바깥 면에는 끈을 묶을 수 있는 한 줄의 홈을 파다.

이번 전시에서는 집게 원형과 함께 집게가 복원되는 과정을 한눈에 만날 수 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집게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문의 062-570-703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남한 노총각과 북한 꽃미녀의
예측불허 결혼일기

남남남 남남남 남남남

북북북 북북북 북북북

매주 금요일 밤 11시

박수홍 ♥ 박수애

양준혁 ♥ 김은아

박수홍 ♥ 박수애

양준혁 ♥ 김은아